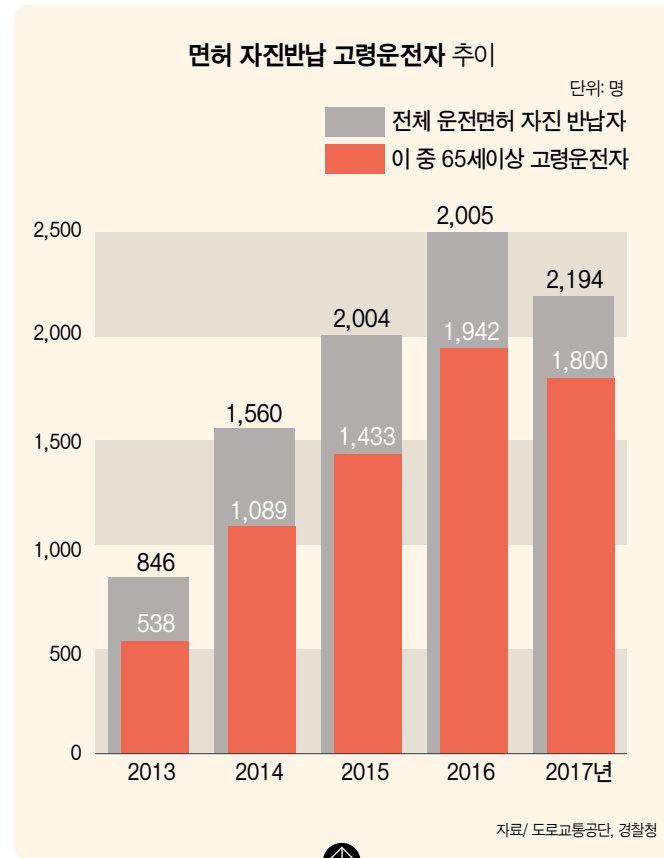


## ‘서울 새 명소’ 1위에 덕수궁 돌담길

막힌 구간이 60년 만에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이 '서울의 새 명소' 1위로 뽑혔다. 서울시는 올해 새로 문을 열었거나 개장을 앞둔 20곳을 선정해 '잘생긴 서울 20곳'으로 이름 짓고 온라인 인기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덕수궁 돌담길이 1만843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주한 영국대사관이 점유해 60년간 시민이 드나들 수 없었던 덕수궁 돌담길 170m 중 100m 구간은 지난 8월 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2위는 1급 보안시설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석유비축기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9천182표), 3위는 전자산업 중심지에서 제조산업 메카로 재도약하는 세운상가(9천133표)가 차지했다.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www.seoul20.com)에서 '잘 생긴 서울 20곳'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재윤 기자



## 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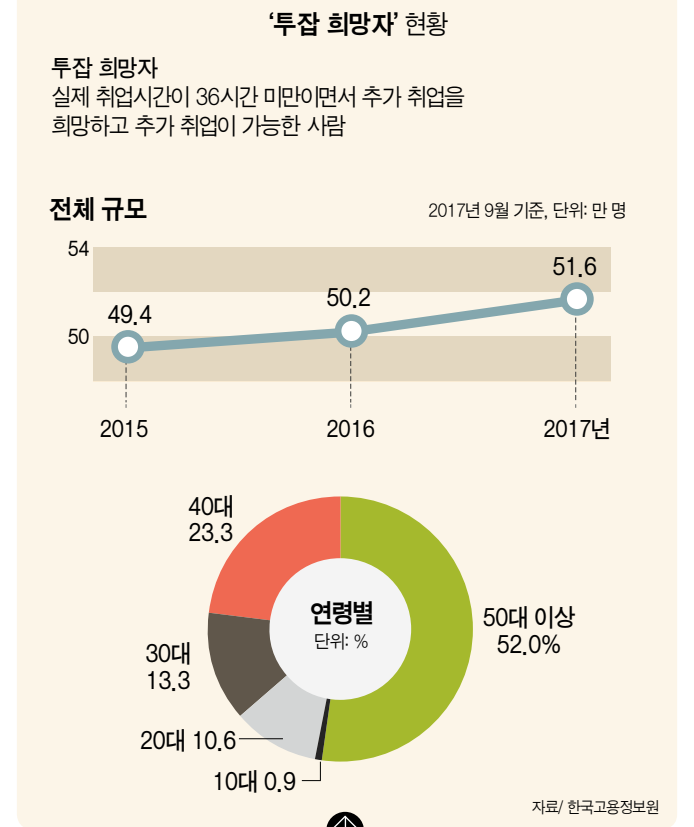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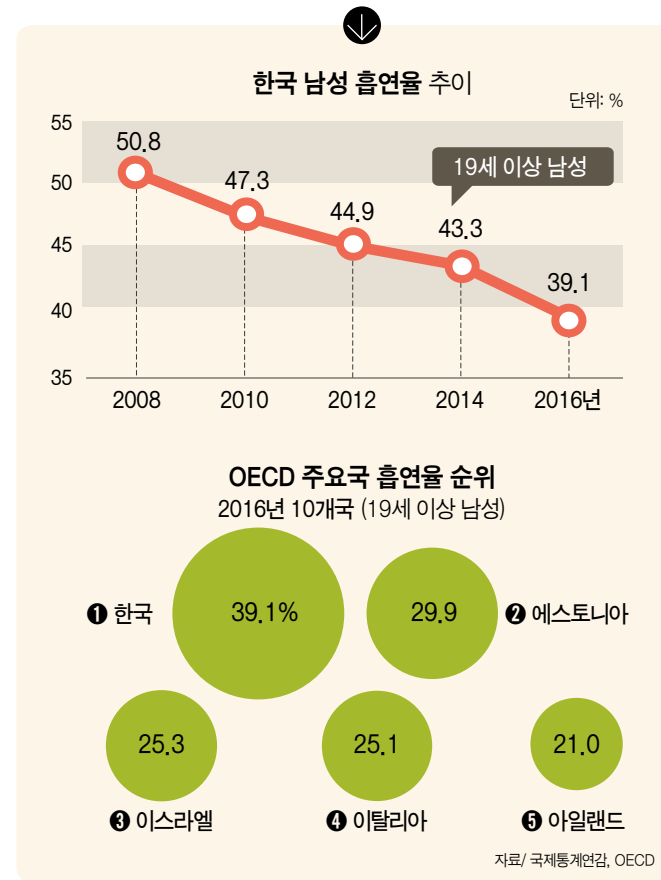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하는 고령운전자가 매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13년 846명에서 2014년 1천560명, 2015년 2천4명, 2016년 2천500명, 올 들어 8월까지 2천194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9천10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의 74.7%(6천802명)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나 무료 인지기능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운전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514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작년 11.1%를 기록하며 10%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재윤 기자

##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 OECD 최상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국제통계연감을 보면 19세 이상 한국 남성의 작년 기준 흡연율은 39.1%다. 2012년 44.9%, 2014년 43.3%와 비교해 흡연율 자체는 낮아졌지만 OECD 다른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선두권이다. 1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한국 남성의 2015년 흡연율은 31%로, 같은 해 흡연율 조사가 이뤄진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당시 조사에서 일본이 30%로 2위, 이탈리아가 25%로 3위를 기록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5세 이상 남성의 36.6%가 흡연자로 파악돼 41.8%인 터키에 이어 통계발표 대상 29개국 중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재윤 기자



## '투잡' 희망자 절반이 50대 이상

일자리를 하나 더 원하는 '투잡족' 가운데 절반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잡 희망자 51만6천 명 중 50대 이상이 52.0%로 집계됐다. 그다음은 40대 23.3%, 30대 13.3%, 20대 10.6% 순이다. 투잡 희망자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세컨드 잡을 원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투잡 희망자는 2015년 9월 49만4천 명에서 작년 9월 50만2천 명, 올해 9월 51만6천 명으로 늘었다. 작년 8월 기준 투잡 희망자의 분포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12만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7만5천 명)과 숙박·음식점업(6만1천 명)이 그 뒤를 따른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 부족분과 미래 불안감으로 더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고 분석했다.

장예진 기자